



<http://council.gangwon.kr>

강원 의정

월간 강원의회 제126호

2015년 1월 19일 월요일

발행처: 강원도의회

발행인 강원도의회 의장 김사성

편집인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한만수

Gangwon Council Activities

200-02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의회 TEL. (033)249-5169 FAX. (033)255-8167 ps1102@korea.kr

인쇄: 예문사



제 126 호
지 면 안 내

- 제241회 정례회 의원발의 안건 . . . 2면
-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 . . 8면
-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 의정활동 . 13면
- 시정연설(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 3면
- 사회문화위원회 의정활동 . . . 9면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 14면
- 5분 자유발언, 행정대상 수상 . . . 4, 5면
- 농림수산위원회 의정활동 . . . 10면
- 의원동정 . . . 15, 16면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 . . 6면
- 경제건설위원회 의정활동 . . . 11면
-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 . . 12면
-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 . . 7면

참가는 낚이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제241회 정례회 의원발의 안건

강원도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신영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홍천군 제1선거구

- 제안이유 :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강원도 명예감시관'의 명칭을 '강원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여 도민감사관의 자긍심 고취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임무에 '고충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기능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감시·감사활동에 참여기반 마련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함

- 주요내용 : △ '강원도 명예감시관'의 명칭을 '강원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
 △ 임무에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역할 추가
 △ 최우수 도민감사관 시상금(부상) 지급 근거 마련
 △ 도 및 시군 단위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오세봉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강릉시 제2선거구

- 제안이유 : 기획행정위원회 오세봉의원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 주요내용 : △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
 △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한 부실공사센터를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고, 부실사항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김금분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춘천시 제1선거구

- 제안이유 :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강원도내 인구교육 진흥·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인구정책 개발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함

- 주요내용 : △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정책을 육성·지원
 △ 인구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및 정책 육성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강원도 인구교육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 | 정 | 연 | 설

제241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4. 11. 25.(화)



최 문 순 강원도지사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함께 애써 주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15년 강원도정의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올림픽 준비입니다.

강원도민 전체 18개 시군, 출향 도민 그리고 해외의 도민까지 모두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올림픽이 끝난 뒤를 대비하는 'After 평창 프로젝트'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과제는 글로벌화입니다. 어려움이 직면한 경제, 강원도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기에 밖으로 진출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밖으로부터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구조의 개혁을 위해 첨단 전략 사업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가장 큰 승부처는 신에너지 산업입니다. 가장 넓은 시장이고 동시에 가장 큰 시장입니다. 신에너지의 신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번째 철도와 도로, 항만, 공업단지를 비롯한 뒤쳐진 SOC를 빠른 속도로 따라 잡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정 과제는 복지입니다. 강원도가 지향하는 복지는 직접복지입니다. 복지에 투자된 재원이 빠르게 경제적 수요를 창출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투자와 기초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작년보다 5,000여억 원이 늘어난 4조 34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 수입과 순세제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5,249억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이제 3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 3년은 강원도에 너무나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원도는 '세계의 강원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와 치밀한 실행 계획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세계의 강원도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 | 정 | 연 | 설

제241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4. 11. 25.(화)



민 병 희 강원도교육감

「모두를 위한 교육」은 지난 1기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교육'을 시작하였고, 혁신학교로 '좋은 교육'의 씨앗을 뿌렸으며, 고교 평준화로 '정의로운 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도 강원도교육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과 5대 정책 기본 방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즐거운 수업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겠습니다.

둘째,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학교 시설에 생태와 학생들의 감성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사업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2015년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

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듀버스로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실질적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통학차량, 학교시설, 식재료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의견수렴 체제로 참여형 교육행정의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적 홍보 활동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감 공약 추진 주민참여단 운영으로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2조 2,090억원 보다 0.2%, 45억원이 증가한 2조 2,13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 속에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올림픽 시설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제24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4. 12. 16.(화)



김 성 근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속초시 제1선거구

11조 8,000억 원,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입니다. 6,993억 원, 우리 강원도가 6개의 경기장을 신설하고 2개 경기장을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수를 하면서까지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유치하

였습니다.

이 기쁨은 잠시였고 어떻게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낼까? 아마도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여러 의원님들 노심초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올림픽을 어렵게 준비해서 경기를 치러낸다 하더라도 수십억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경기장들에 대한 사후관리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이때에 IOC의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권고에 소위 뻔봉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도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를 모든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얼마나 멋지게 치러내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껌대기뿐인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서 빚너미의 고통도 함께 물려준다면 그것은 바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사후 활용을 고려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미디어와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도 적절하게 하고 이미 지어진 펜션과 숙박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대규모로 확충되는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복합적인 관광 비전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사후대책을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준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하며, 빠른시일내에 도지사님과 의장님께서도 올림픽 사후 활용위원회 특별기구, 상시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발전 방향

제24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4. 12. 16.(화)



구 자 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4선거구

삼수 만에 어렵게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비 지원 축소 문제로 갈등을 빚더니 IOC 해외분산 개최 요구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 요인을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절감과 사후관리 불충분을 이유로 경기장 축소를 요구하고 있고 설게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IOC 또한 비드파일을 스스로 파기했고 모든 결정은 평창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강원도의 몫과 부담이 무엇인지, 무엇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직위와 강원도만 원안 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관리를 위하고 대회 개최 3개 시·군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폐회식장은 당초대로 알펜시아 스키점프대경기장에서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 문제를 이유로 폐막 후 철거로 논의 중인 스피드스케이팅장은 춘천에, 아

이스하키 1경기장은 원주에, 스노보드경기장은 횡성으로 분산 개최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환경파괴 주장이 거듭되고 있는 중봉 알파인 경기장의 경우 500년 이상 보존된 원시림을 파괴하지 말고 두 번 결과를 합산하는 투런 경기방식을 IOC에 강력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낙후된 노내 SOC 확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를 한다고 동계올림픽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7일간의 경기가 끝난 후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지 절망을 안겨줄지 선택할 시점입니다.

4년 뒤인 2018년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사죄 대신 박수를 받는 모습이 연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2018 겨울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제24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4. 12. 16.(화)



김 용 래 의원

교육위원회 / 강릉시 제3선거구

오늘 문화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회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문화올림픽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아 걱정스럽고 안타까울 따릅니다.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 앞선 ICT 기술을 효과적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폐회식장 조성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화올림픽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지향

하는 문화·환경·평화·경제올림픽의 4대 목표 중에 으뜸입니다. 문화올림픽을 강조하는 것은 국격이 걸려 있는 것은 물론, 올림픽 유산을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실질적인 주인인 강원도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올림픽의 주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민 전체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18개

시·군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해 정부, 강원도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얼굴이며 당대 혁신적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증명하는 유산으로 남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감동받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각에 맞는 개·폐회식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에서 아낌없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 때 몰려드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강원도의 문화와 얼, 그리고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인 아트센터 건립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혁신도시 추진에 관하여

제24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4. 12. 16.(화)



박 윤 미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비례

원주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개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원주로 이전하는 정부 추진사업입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이전 완료한 공공기관은 국립과학사연구원과 한국보훈복지공단, 산림항공본부 등 3개 기관에 지나지 않고 2014년 올해는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석탄공사가 이전

을 완료했고, 한국광해 관리공단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15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서 38.4%의 사업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이전한 몇몇 기관은 전체 기관이 이전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서울에 남아 있는 반쪽의 이전 기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과 원주의 거주지 여건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 문제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사실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신설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는 2016년과 2017년에 개교를 계획하고 있어서 혁신도시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중앙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방분산정책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지 못하

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시기를 늦추고 반쪽만 이전하는 실태를 보면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지방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비 8,396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도의 혁신도시 추진부서는 담당급 1명과 직원 4명이 전부이고 원주시 조직 또한 담당 1명에 직원 3명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나마 이들 직원들은 기업도시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을 시작한 지금부터가 사실상 혁신도시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혁신도시 관련 부서를 보강해서 우리 도로 이전하려고 계획하였던 기관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단체급식소 식품 안전 실태 관련

제24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4. 12. 16.(화)



장 세 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화천군

강원도의 단체급식소 식품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4년 1월에 춘천지역 4개 군부대에서 장병 18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선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에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강원도에 주둔한 군부대 식중독 발생이 보건소에 신고된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의한 역학조사는 1건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부대가 식품위생법은 물론이고 자체 훈령조차도 지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런 점이 군부대 식중독 예방관리를 소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식중독 발생자 수를 보면 2012년에 전국 1위, 2013년에는 2위로 기록되고 있으며 1년 전 닭갈비업소 대란 등 식중독 강원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단체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적인 식품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강원도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체급식소 합동위생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에 3,304회를 점검해서 37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2013년에는 44개소들, 금년 9월까지 40개소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만으로는 급식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체급식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건설법을 실시하고 급식안전관리, 민·군·관 협력체계 구축, 범도민 식중독예방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단체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대책 재정립과 식중독 없는 청정한 급식환경에서 올림픽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 기 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양구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지역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공로 등으로 '우수의정 행정대상' 을 수상하였다.

강원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4조 5,588억원

“예결위 심사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

201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623억원(14.1%)이 증가한 4조 5,588억원으로 편성되어 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4조 34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129억원(14.6%), 공기업특별회계는 2,70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12억원(18%), 기타특별회계는 2,546억원으로 82억원(3.3%)이 각각 증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복지구현, SOC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심사의 중점을 두었다.

계수조정 규모는 16,458,731천원으로, 중국관광객 특별유치홍보 160,000천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집행하고,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4,911,000천원 중 325,000천원은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지원에, 그리고 내

부유보금 중 5,000,000천원은 추경 시 FTA대응사업에 사용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 했을 때 계획과 효과성에 있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 삭감된 도내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더 주도면밀하고, 투입 대비 효과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5 당초예산	%	2014 당초예산	증 감	%
합 계	4,034,000,000	100	3,521,100,000	512,900,000	14.57
사 채 수 입	831,624,989	20.69	770,319,131	61,305,855	8.35
지 방 세	742,000,000	18.39	700,600,000	41,400,000	5.91
세 외 수 입	92,624,989	2.30	69,719,134	22,905,855	32.85
의 존 수 입	2,986,374,527	74.03	257,629,154	410,078,373	15.92
지방교부세	673,000,000	16.68	651,049,530	21,950,470	3.37
국고보조금	2,313,374,527	57.35	192,524,624	388,127,903	20.16
지 방 채	98,000,000	2.43	11,000,000	87,000,000	790.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5,000,484	2.85	163,484,712	△48,484,228	△29.66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5 당초예산	%	2014 당초예산	증 감	%
계	4,034,000,000	100	3,521,100,000	512,900,000	14.57
경 상 예 산	765,581,031	18.98	745,421,211	20,159,820	2.70
7 중인간비	328,463,107	8.14	312,949,386	15,513,721	4.96
7 금 조 형	10,067,849	0.25	9,329,813	738,036	7.91
법 정 경 비	427,050,075	10.59	423,142,012	3,908,063	0.92
사 업 예 산	3,201,784,801	79.37	2,725,480,583	476,304,218	17.48
중앙지원사업	2,698,632,946	66.90	2,295,674,814	402,958,132	17.55
자 채 사 업	400,240,850	9.92	361,201,635	39,039,215	10.81
지정지원사업	102,911,005	2.55	68,604,134	34,306,871	50.01
지방채 상환	66,634,168	1.65	50,198,206	16,435,962	32.74

○ 총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5 당초예산	%	2014 당초예산	%	비교(△)증감	%
총 계	4,558,880,000	100	3,996,544,000	100	562,336,000	14.1
일 반 회 계	4,034,000,000	88.5	3,521,100,000	88.1	512,900,000	14.6
특 별 회 계	524,880,000	11.5	475,444,000	11.9	49,436,000	10.4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270,273,000	5.9	229,065,000	5.7	41,208,000	18.0
기타특별회계	254,607,000	5.6	246,379,000	6.2	8,228,000	3.3
강원도립대학운영	9,631,000	0.2	9,560,000	0.2	71,000	0.7
의료급여기금운영	226,340,000	5.0	223,232,000	5.6	3,108,000	1.4
학교용지부담금	18,636,000	0.4	3,587,000	0.3	5,049,000	37.2

도교육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2조 2,135억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교육복지 구현”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지난 12월 16일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원 증액된 2조 2,135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축소 및 자체수입 등 재정수입은 줄이든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7억원, 지방교육채 1,169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지원,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구현 등 정부시책과 학교급식, 창의·인성교육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정책사업이 대부분 감소하여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효율성이 낮은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계수조정 규모는 12,886,820천원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1회추경 이전에 「누리과정지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 증액분 12,036,820천원에서 11,761,820천원을 누리과정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당초예산	%	2014 당초예산	%	증 감 액	%
합 계	2,213,500,000	100	2,209,000,000	100	4,500,000	0.2
이 전 수 입	1,990,037,939	89.9	2,041,259,292	92.4	△51,221,353	△2.5
중앙·정부·이전수입	1,797,932,110	81.2	1,879,916,764	85.1	△81,984,654	△4.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2,105,829	8.7	161,342,528	7.3	30,763,301	19.1
기 타 이 전 수 입	0	0	0	0	0	0
자체수입	42,930,679	1.9	44,177,708	2.0	△1,247,029	△2.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180,531,382	8.2	63,563,000	2.9	116,968,382	184.0
기타	0	0	60,000,000	2.7	△60,000,000	순감

○ 세 출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당초예산	%	2014 당초예산	%	증 감 액	%
계	2,213,500,000	100.0	2,209,000,000	100.0	4,500,000	0.2
유아및초등교육	2,118,067,832	95.7	2,120,838,975	96.0	△2,771,143	△0.1
평생·직업교육	5,476,748	0.2	5,791,860	0.3	△315,112	△5.4
교육일반	89,955,420	4.1	82,369,165	3.7	7,586,255	9.2

강 / 원 / 도 / 의 / 회

의회운영위원회

원활한 도의회 운영을 통한 일하는 의회상 확립

■ 2014년도 운영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18일 제234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하였는데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5월에,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 되, 4월회기 일정을 2일 단축하고 6월회기는 2일을 늘리기로 결정 하였다.

월별 주요 안건으로는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10월에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11월과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하기로 하였다.

시·도의회장협의회 실무기구로 구성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가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지원 확대 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 등 우리도의 현안과 제를 제안하여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 의하였다.

2014년 7월 4



일에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선임되었는데 5개 상임위별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2 명씩 총 10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4년 7월 7일에 23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등을 원안 가결하였다.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 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7. 24 ~ 7. 25,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태백시 일원(오투리조트, 한국청소년안전체협관, 강원도소방학교 등)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8. 28 ~ 8. 29, 2일 간에 걸쳐 도의회 의장단(의장·부위원장 2, 운영위원장)에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예결위위원장과 강원도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강원도의 SOC사업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도정 현안사업 관련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하였다.

이와함께 2014

년 9월 16일에는 제 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사라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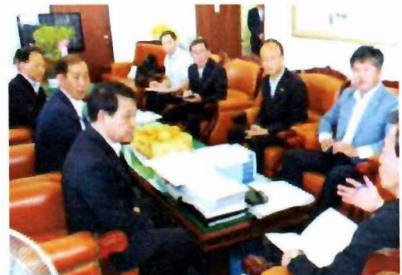
도용복 회장을

초청하여 “여행

으로 배우는 자기개발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원도의회 인문

학 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여행의 경험담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과 폭넓은 의정역량을 함양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향후 계획 및 운영 방향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입법화 등 의정현안이 빠른 시일 내 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 ‘강원도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등 의회 운영관련 제도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 / 원 / 도 / 의 / 회

기획행정위원회

300만 내외도민의 대표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의정 펼칠 것

■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조성, 건실한 교육협력체계 구축,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 및 인재육성, 효율적인 세원관리,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강원도정의 중추적인 분야를 다루면서 도민의 편익증진, 권익 향상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지난 해에는 의회의 입법기능으로 총 42건의 조례안, 19건의 동의안, 1건의 건의안을 의결처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34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법질서 확립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및 도민 생활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강원도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 도지사의 협의회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강원도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예



산·기금 낭비에 대한 공개요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기여자 성과급 지급·표창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태 공개 조례'를 의결하였고 6월 제237회 임시회(6월)에서는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의결,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적극 활용·소비 촉진을 도모하였으며, 지역의 대학 및 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9회(9월)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다.

또한, 제241회(11월) 임시회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설시공 신고 활성화를 통한 경기장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의결,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이후 도정수행 방향제시와 소관부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집행부 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 감시·감독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다.

■ 향후 계획 및 운영 방향

앞으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타당성 있는 정책과 대안의 제시를 통해 도민 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300만 도민의 대표로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의정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 2014년도 사회문화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제9대 강원도의회 개원 이후 사회문화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인 제안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주요 의정활동으로 2014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문화·관광·보건 분야에 대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였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민생에 직접 연관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양국제공항 지원사업의 도민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사업방향의 재검토, 실질적 소득 향상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관령국제음악제와 평창비엔날레 등 대규모 문화예술행사에 도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에 걸친 도내 의료원 현지감사를 통해 의료원 경영개선과 공



공의료의 역할 증대를 함께 논의하였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점검으로 강원도민의 민생 점점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현지시찰 부문에서는 소관 사업소인 DMZ박물관과 한국여성수련원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 시찰을 진행하였으며 이용객 증대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제시를 통해 예산절감과 더불어 도민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현지시찰을 타시도 우수 관광지 등으로 반경을 확대하여 우리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터키·그리스에 대한 국외연수를 통하여 세계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강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고, '한·터 문화교류협회'를 방문하여 국제민속축전을 통한 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수 이후에 '주터키 한국문화원'과 함께 도내 대학과 터키 대학간 교류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진행하여 지

역대학의 글로벌화에 일정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2014년 사회문화위원회는 안으로



는 도민 민생복지와 강원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안 및 정책들을 처리하였으며, 밖으로는 강원도를 비롯한 국내 및 해외현지시찰을 통해 우리 도에 우수 정책 사례를 접목시키고자 노력해왔다.

■ 향후 계획 및 운영 방향

지난 6개월간 제9대 강원도의회 활동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현안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도정에 대한 정책 점검과 예산·조례 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자문단과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타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현지시찰시 주요 관광지와 축제 그리고 복지시설 등으로 활동 분야 확대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의 각종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틀을 만들어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 / 원 / 도 / 의 / 회

농림수산위원회**도내 농어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전개**

■ 2014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지난 1년 동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도내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의 반영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특히, 한·미 FTA, 한·중 FTA 발효 등 국제적 여건상 농업시장 개방이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농업은 더욱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고,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도내 농어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의 추진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듣고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 하는 등 현장중심의 「가까운 의회」, 「일하는 의회」를 실천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도정질문, 현지시찰,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을 요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제시와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제241회 정례회에서는 FTA발효 등으로 이득을 본 산업에 대하여 순이의 중 일부를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FTA무역이득 공유제 법안(국회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건의하였으며,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을 강원도로 유치하기 위한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고, 강원도가 가진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아동들에 대한 전인교육 실시를 위해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도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도민들이 쉽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지시찰을 통해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평창의 무배추 출하조절시설을 방문하여 김장철 무·배추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고성외국인 선원숙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고용실태 및 거주환경 등을 살핀 후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향후 계획 및 운영 방향

앞으로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도내 농어업의 발전과 산림자원의 개발, 환경보존을 위해 힘을 모아 현안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세계 각 국가와의 FTA체결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내 농림어업이 전국 최고의 경쟁력과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 차별화 시키는 등 대응전략 추진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발전적 대안과 정책 제시를 통해 강원도 농림어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강 / 원 / 도 / 의 / 회

경제건설위원회

현장중심 · 서민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지난 1년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중심 · 서민중심」의 기초 아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의 제 · 개정 등에 있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왔다.

특히 강원도의 전반적인 하드웨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분야와 서민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분야, 그리고 당면 최대 현안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 강원도의 외연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현지시찰 등을 통하여 집행부와 현안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혼연일체 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인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의미있고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은 국가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철도 체계의 장기적 관점에서 강원도 철도의 잠재력과 경제성을 올바로 평가하는 합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지침이 요구됨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라는 특별수요의 반영과는 별도로 관성적, 관행적 조사기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강원도 철도

가 지닌 차별성이 고려돼야 함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동서고속화 철도는 통일을 위한 기반시설인 동시에 북방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198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이래 약 20여년간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해온 현안이므로 조기착공을 위한 속도를 내도록 추진할 것을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기재부에 용역결과를 제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말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미시령터널 재정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의회에서는 지리적 · 심리적 소외된 강원도 북부지역의 미시령터널을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국가가 매수하여 국도로 관리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 건의 하는 등 강원도의 재정압박 해소와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 향후 계획 및 운영 방향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안들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성찰과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 역량강화와 함께 소통을 우선시하는 상임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정 구현

■ 2014년도 교육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교육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정치가 아닌 교육에 그 본질을 두고 조례안 12건, 예산·결산안 5건, 동의·승인안 12건 등 총 29건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또, 교육이라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심사한 교육감 제출 조례안, 예산안 등의 의안 심사 과정은 의회 민주주의와 교육위원회 구성원의 위상을 한층 더 고조시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춘천교육문화관 등 직속기관과 이탈리아의 교육기관 및 전남 해동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선진 교육정책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학교 설립 이전 예정지등 각종 현지사찰을 통하여 현지의 건을 적극 수렴하는 등 등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원도소년체육대회 등)에 참석하여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위하여 선전하는 도내 초·중·고 선수들을 방문 격려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였다.



■ 향후 계획 및 운영 방향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항상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입법,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에 충실하여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합리적인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강 / 원 / 도 / 의 / 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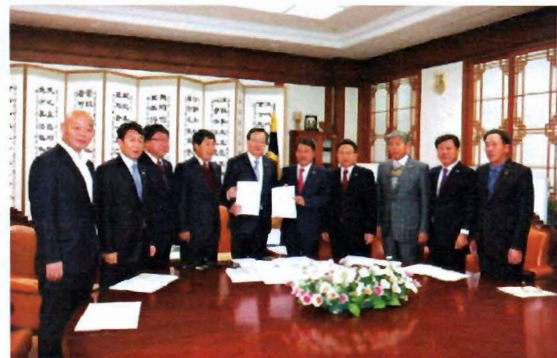


동계특위 위원 7명을 중심으로 2014소치동계올림픽 시찰을 통하여 대회 운영상황과 진행프로그램 확인, 경기장 운영시설 및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친환경 경기장 건설사례, 대회 이후 경기장 운영·관리방안, 신속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시교통체계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확인하였으며, 시찰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정책결정시 접목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등 타 지역 개최사례를 평창동계올림픽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대회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동계올림픽이 단순히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국민의 노력으로 유치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에 나서야 할 정부가 경기장 재설계 요구와 강원도 무시발언 등이 자행되는 시점에서, 동계특위에서는 강원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얼마남지 않은 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강원도민에게 더 이상 불신과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강원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동계올림픽 왜곡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게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지원강화와 입장변화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폐회식장 건립에 대한 국비의 부담 등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됨에 따라, 11월 17일에 알렌시아리조트에서 강원도의회 의장과 동계특위 위원, 개최지 3개시군 동계특위 의장단 등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정부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실효 노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후속조치로 11월 24일에는 국회의장과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12월 17일에도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 이익과 경제적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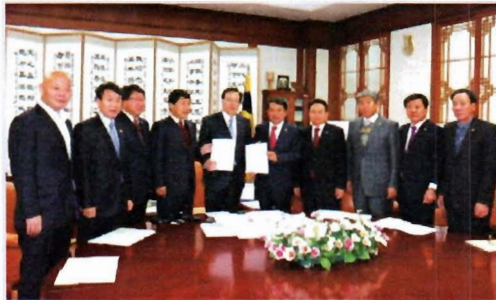
■ 향후 계획 및 운영 방향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동계올림픽본부, 개최지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과 협의를 통하여 동계올림픽의 차질없는 준비에 지혜를 모으는 한편,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지원확대, 올림픽 특구 지정,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2014. 11. 24.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국회의장 및 조직위원회 방문



■ 2014. 12. 05. 의정현안과 정책대안 토론회



■ 2014. 12. 15. 강원도의회 연탄배달 봉사활동



의원동정



△ 김시성 의장은 12월 8일 춘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방송토론회'에 참석, 12월 17일 속초 외옹지해변에서 열린 '롯데리조트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 이기찬 경제건설위원장은 12월 10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린 '평창겨울 올림픽 상품발굴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 12월 22일 양구 미술관에서 열린 '양구 파빌리온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 남경문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위원장은 12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12월 26일 정선 강원랜드에서 열린 '폐광지역개발촉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 김동일 부의장은 12월 8일 철원군청에서 열린 'DMZ평화시상식 및 국제평화심포지엄'에 참석, 12월 16일 춘천 소재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전국체전 유공자 및 강원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 이문호 교육위원장은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열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 12월 22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전남 해릉고등학교'를 현지시찰하였다.



△ 강청룡 도의원은 12월 3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석, 12월 30일 춘천 배어스타운에서 열린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였다.



△ 권석주 부의장은 12월 10일 강릉 포남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햇빛발전소 1단계 사업 준공식'에 참석, 12월 2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분권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 김기홍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12월 18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식'에 참석, 12월 22일 원주 대장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장2동 공동주택 관리소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박영성 도의원은 12월 2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에 참석, 12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임남규 운영위원장은 12월 12일 태백시청에서 열린 '태백 12·12 대정부투쟁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2월 30일 태백소방에서 열린 '화진 119안전센터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오세봉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위원장은 12월 17일 서울 평창올림픽조직위를 방문 '올림픽성공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12월 18일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열린 '강릉 대도호부관아 현판식'에 참석하였다.



△ 김규태 도의원은 12월 17일 부산 국제시장과 강릉시장, 통영 중앙시장을 현지시찰, 12월 26일 정선 강원랜드에서 열린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 함중국 기획행정위원장은 12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12월 31일 횡성 보존공원에서 열린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에 참석하였다.



△ 구자열 분권특위위원장은 12월 18일 원주 아모르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식'에 참석, 12월 2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분권특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김기철 도의원은 12월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자협회 국회토론회'에 참석, 12월 29일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빛 축제'를 견학하였다.



△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은 12월 19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ICT 융복합 문화컨텐츠육성 추진협의회'에 참석, 12월 22일 춘천 배어스타운에서 열린 '2014 장애인체육인의 밤 및 제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하였다.



△ 장세국 접경지역발전특위위원장은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열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 12월 16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을 현지시찰하였다.



△ 김성근 도의원은 12월 8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석, 12월 29일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빛 축제'를 견학하였다.



△ 권혁열 농림수산위원장은 12월 15일 춘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열린 'FTA에 따른 강원도 농업의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 참석, 12월 19일 강릉 주문진문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영주적십자봉사회 회장·취임식'에 참석하였다.



△ 이정동 장애인복지특위위원장은 12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 참석, 12월 22일 춘천 배어스타운에서 열린 '장애인체육인의 밤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하였다.



△ 김연동 도의원은 12월 10일 강릉 포남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 햇빛발전소 1단계 사업 준공식'에 참석, 12월 22일 전남 해릉고등학교를 현지시찰하였다.



△ 김용래 도의원은 12월 10일 강릉 포남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햇빛발전소 1단계 사업 준공식'에 참석, 12월 15일 춘천 소양로 일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하였다.



△ 심영근 도의원은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 12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정재웅 도의원은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 12월 18일 춘천 퇴계동 하나로를 랍에서 열린 '하이록 한우타운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김용복 도의원은 12월 3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석, 12월 19일에 원주아모르컨벤션웨딩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였다.



△ 심영섭 도의원은 12월 10일 강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기 정기대회'에 참석,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하였다.



△ 진기엽 도의원은 12월 12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정연찬회'에 참석, 12월 31일 횡성 보훈공원에서 열린 '국민의 종 재야 타중행사'에 참석하였다.



△ 남평우 도의원은 12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12월 19일 원주아모르컨벤션웨딩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하였다.



△ 안상훈 도의원은 12월 1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2014년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참석, 12월 26일 춘천 후평1단지 시장에서 열린 '후평1단지시장 비가림시설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최명서 도의원은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 12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박길선 도의원은 12월 8일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원주시 이·통장 연합회'에 참석,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하였다.



△ 소원일 도의원은 12월 8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석, 12월 22일 전남 해룡고등학교를 현지시찰하였다.



△ 최성재 도의원은 12월 22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14 강원도지방방관간담회'에 참석, 12월 30일 원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박윤미 도의원은 12월 19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ICT 융복합 문화컨텐츠 육성 추진협의회'에 참석, 12월 2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분권특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원강수 도의원은 12월 16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 참석, 12월 2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방관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 최성현 도의원은 12월 1일 춘천 석사동 일대 경로당에서 '어르신 무료배식' 봉사활동에 참석, 12월 15일 춘천시민복지회관에서 열린 '춘천시 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 박현창 도의원은 12월 15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 참석, 12월 23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평창군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였다.



△ 유정선 도의원은 12월 9일 춘천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린 '2014년 강원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하였다.



△ 한금석 도의원은 12월 12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정연찬회'에 참석,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하였다.



△ 신도현 도의원은 12월 18일 홍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홍천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에 참석, 12월 2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 이종주 도의원은 12월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2014 강원교육사진전 및 UCC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에 참석, 12월 10일 강릉 포남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햇빛발전소 1단계 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홍성욱 도의원은 12월 15일 춘천시 소양로 일원에서 동절기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참석, 12월 26일 정선 강원랜드에서 열린 '폐광 지역개발촉진지인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 신영재 도의원은 12월 4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도 정보화마을 한마음대회'에 참석, 12월 26일 홍천농공고에서 열린 '홍천농고 인터레트 창립식'에 참석하였다.



△ 장석삼 도의원은 12월 17일 양양 울베치 호텔에서 열린 '사회복지인의 밤' 행사에 참석, 12월 19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문화도민운동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하였다.